

2010 사우회 정기총회, 긴축 예산 편성

올해예산 2억 7,600만원 확정, 동호회 단합대회 집중지원

2.26 이빠네마서 총회... 김철순(업무) 김규수(기술) 감사연임

MBC사우회는 2월 26일 사무처 인근식당 이빠네마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열고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 강영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BC 사우회가 최고의 친목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모회사인 MBC가 경쟁력 있는 뉴미디어로 우뚝서 최고의 문화방송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2010년 예산은 2억 7,600만

정관규정개정

퇴직후 1년 이내 입회원서 제출로 강화

경조규정개정

5년 이상 연회비미납회원 경조비지급중단

원으로 지난해보다 7.3% 정도 줄어든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고 앞으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송년의 밤등 회원 단합대회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끝난 김철순(업무),

김규수(기술) 감사를 연임시키고 또 정관 일부와 경조규정 일부(아래참조)를 개정했다.

- 개정된 정관 :

제7조 (가입 및 탈퇴) 1항,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에서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MBC 퇴직후 1년 이내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로 고쳤다.

(회원 가입은 퇴직후 자동 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입회원서를 1년 이내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여러해 무관심 하다가 아무 때나 가입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취지임)

- 경조규정 개정내용 :

제3조 (경조금의 지급) 3항. 연회비를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에서 연회비를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고쳤다.

(연회비를 5년 이상 연회하지 않도록 강조한 취지임)

인사말

사랑받고 신뢰주는 MBC 만들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겨울 유례없이 매서운 한파와 폭설을 겪은 것이 잊그게 같은데 벌써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장이 되어 책

임감도 막중하고 또 여러 선배님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으신 MBC의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지만 저는 MBC의 가능성과 저력을 믿고, MBC가 시청자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를 주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해 볼 생각입니다.

사우회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제 곧 만개할 벚꽃과 같은 사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선배님들과 선배님 가정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4. 8

(주)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김재철

사우회장단, 김재철사장과 상견례

“MBC의 명성회복에 최선을다할라” “최대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전영배 기조실장 안광환 편성본부장 이우철 디지털본부장 김재형 경영본부장 등 참석

4월 7일 하림각오찬

강영구 회장등 MBC사우회 회장단이 MBC 김재철 사장과 상견례를 갖고 협력을 다짐했다. 4월 7일 하림각에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강회장은 김사장에 대한 신뢰와 함께 MBC가 예전의 명성을 하

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사장은 선배들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사우회 행사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모임에는 사우회에서 강회장을 비롯해 이연

현 상임부회장, 김진호 김용민 권순복 이진식 부회장과 김철순 김규수 감사, 백하현 총무이사, 최준식 사무처장이 참석 했으며 MBC에서는 전영배 기획조정실장 안광환 편성본부장 이우철 디지털본부장 김재형 경영본부장이 참석했다.



Heungkuk
Finance Group

Dynamic Heungk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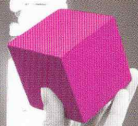
흥국금융가족 희망을 쏜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흥국금융가족의 열정은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흥국금융가족과 함께 더 많은 행복을 만나십시오

소중한 당신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김사장, 본·관계회사 임원인사 단행

“글로벌 경쟁력 갖춘 최고 방송사로 키우겠다”



· 1979 MBC 보도국이사
· 1994 도쿄특파원
· 1999~2002
보도국국제부장-정책보좌역
· 2004 보도제작국장
· 2005 울산MBC사장
· 2008청주MBC사장.

김재철 전 청주MBC 사장이 2월 26일에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MBC 새 사장으로 선임됐다.

김재철 신임사장은 3월 8일자로 김종국 전 기획조정실장을 마산-진주문화방송 사장으로 선임 하는등 19개 계열사와 9개 자회사 임원인사 (임원명단 도표참조)를 단행했다.

김사장은 이어 부사장과 기획조정실장, 보도본부장, 편성본부장 등 본사 임원인사도 추가로 단행었다.

김사장은 회사를 정상화 시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속에서 MBC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최고의 방송사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

부사장 황희만 보도본부장 차경호

기획실장 전영배 TV제작 본부장 조중현

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방송사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신동아 4월호와의 MBC 인사관련 인터뷰 내용이 물의를 일으키자 3월 19일자로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MBC 부사장 황 희 만		서강대 경제학과 졸 1981년 보도국 이사 / 2000년 보도국 LA특파원 2003년 보도국 정치부장 / 2009년 울산MBC 사장
MBC 기획조정 실장 전 영 배		서울대정치외교학과 졸 1984년 보도국 이사 / 2000년 파리 특파원 2006년 사회에디터 / 2009년 보도국장/특보
MBC 편성 본부장 안 광 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1982년 문화방송 이사 / 1997년 편성국 영화팀장 2000년 편성기획부장 / 2006년 편성국장
MBC 보도 본부장 차 경 호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 1984년 보도국 이사 / 2002년 동경 특파원 2006년 보도국 경제과학에디터 (부국장) 2009년 보도국장
MBC TV제작 본부장 조 중 현		한국외대 중국어학과 졸 1984년 TV제작국 이사 / 2005년 드라마국 특임3CP 2006년 드라마국 기획개발팀장 / 2009년 드라마국장
MBC 디지털 본부장 이 우 철		한양대 전자공학과 졸 1984년 방송기술국 이사 / 2002년 TV송출부장 2008년 송출기술국장 / 2009년 디지털기술국장
MBC 경영 본부장 김 재 형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졸 1984년 문화방송 이사 / 2000년 기획국 전략기획부장 2004년 사업국콘텐츠사업부장 2008년 기획조정실 부실장
MBC 특임이사 윤 혁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졸 / 1981년 TV제작국 이사 1997년 사회교양팀장 / 1998년 교양4CP 2009년 편성제작국 외주제작1부 부국장

MBC 관계회사 임원			울산 MBC 사장	소원영	경북대 사회학과 졸 / 1982년 TV제작국 이사 2003년 드라마국 프로듀서 / 프로듀서 2008년 드라마국 특별기획CP	MBC 미술훈터 사장	김정수	한국외대 이태리어학과 졸 / 1982년 라디오제작국 이사 2007년 기획조정실 부실장 / 2008년 라디오본부장 2009년 원주MBC 사장
부산 MBC 사장	김수병	연세대 교육학과 졸 1979년 부산MBC 보도국 이사 1999년 보도국 취재팀장 / 2005년 보도국장 2008년 기획심의실 홍보심의부	강릉 MBC 사장	임무현	동국대 회계학과 졸 / 1982년 총무국 이사 2003년 비서실장 / 2006년 건설기획단 부국장 2008년 재무운영국장	iMBC 사장	손관승	한국외대 독일어학과 졸 / 1984년 스포츠국 이사 2000년 베를린 특파원 / 2005년 보도국 특임2CP 2008년 보도특집팀장
대구 MBC 사장	박영석	영남대 법학과 졸 / 경북대 정치학 박사 1984년 대구MBC 보도국 이사 2003년 보도국 정경부장 2005년 보도국장	여수 MBC 사장	송원기	연세대 행정학과 졸 / 한국외대 행정학 박사 1984년 총무국 이사 / 2002년 국제협력부장 2009년 미래전략위원회	MBC 플러스 미디어사장	안현덕	경희대 법학과 졸 / 1985년 기획실 이사 2005년 관계회사팀장 / 2006년 국내사업팀장 2008년 감사실 부장
광주 MBC 사장	정태성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 / 1982년 보도국 이사 1999년 홍콩 특파원 / 2005년 보도제작국장 2007년 선거방송 기획단장	안동 MBC 사장	이윤철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 / 1981년 아나운서실 이사 1993년 스포츠 담당 / 2000년 아나운서2부장 2003년 아나운서국장	MBC ESS스포츠 사장	조기양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 / 1982년 스포츠국 이사 2001년 심의부장 / 2006년 통일방송협력팀 2007년 MBC플러스 이사
대전 MBC 사장	고대석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졸 / 1981년 보도국 이사 1991년 모스크바 특파원 / 2003년 국제부장 2006년 신사육추진팀장	원주 MBC 사장	한기현	중앙대 사회사업학과 졸 / 1978년 업무국 이사 2003년 경영본부장 / 2005년 전주MBC 사장 2009년 감사	MBC미주 법인 사장	조복행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졸 / 1982년 홍보조사실 이사 1999년 비서실장 / 2001년 사업부장 2005년 사업국상/글로벌사업본부장
전주 MBC 사장	선동규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졸 / 1984년 보도국 이사 1985년 모스크바 특파원 / 2005년 정치부장 2007년 정치국제에디터	충주 MBC 사장	배대운	서울대 신문방송학과 졸 / 1981년 보도국 이사 1999년 동경 특파원 / 2003년 시사제작1CP 2008년 논설위원	MBC 프로 덕션 이사	정수채	명지대 외국어교육학과 졸 / 1978년 TV제작국 이사 1995년 문화정보팀장 / 1996년 생활정보팀장 2000년 시사교양국 부국장
마산 진주 MBC 사장	김종국	고려대 경제학과 졸 / 1981년 보도국 이사 1997년 LA 특파원 / 2003년 보도국 부국장 2008년 기획조정실장	삼척 MBC 사장	문장준	항공대 항공전자공학과 졸 / 1982년 기술국 이사 2000년 보도기술부장 / 2005년 송출기술국장 2008년 기술본부장	iMBC 이사	전재철	중앙대 심리학과 졸 / 1981년 보도국 이사 1988년 뉴욕 특파원 / 2000년 영상편집부장/스포츠영상부장
청주 MBC 사장	윤정식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졸 / 1991년 보도국 이사 1996년 정치부 / 2001년 iMBC 이사 2008년 홍보심의국 부국장	포항 MBC 사장	강성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졸 / 1978년 보도국 이사 2000년 북경 특파원 / 2003년 보도국장 2006년 논설위원	MBC 플러스 미디어이사	양윤도	경희대 무역학과 졸 / 1982년 보도국 이사 1995년 모스크바 특파원 / 2005년 영상편집부장 2009년 보도국 부국장
			MBC 프로덕션 사장	윤혁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졸 / 1981년 TV제작국 이사 1997년 사회교양팀장 / 1998년 교양4CP 2009년 편성제작국 외주제작1부 부국장	MBC 플러스 미디어이사	김동진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졸 / 1992년 경향신문 미디어 연구소 1995년 CJ홈쇼핑 방송본부장 / 1997년 MBC드라마팀 방송본부 총괄국장 / 2009년 MBC플러스미디어 채널3국장

MBC MEDIA DRAMA GAME ESPN LIFE Every

www.mbcplusmedia.com

함께
우리가족은 TV를 본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TV MBC MEDIA

MBC플러스미디어는 언제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기업입니다.

MBC플러스미디어는 드라마 전문 채널 MBC드라마, 버라이어티 전문 채널 MBC예능, 게임 전문 채널 MBC게임, N1 스포츠 채널 MBC ESPN, 생활 문화 다큐멘터리 채널 MBC라이프 등 5개 채널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MBC
ESPN

MBC
GAME

MBC
every

MBC
DRAMA

MBC
LIFE

이 사람!

“자연 속에 파묻혀 농사짓는 삶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죠”

MBC 전 카메라 기자 임채현



“등산하고 밭일 하다보면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죠.” 3년 전 소요산 근처로 이사해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는 임채현 전 MBC 카메라 기자. 밭에서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단다.

소요산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그는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지낸다. 상추, 고추, 배추, 고구마, 무, 토마토, 가지,

오이 등 재배하는 채소만 해도 10여 가지는 족히 넘는다고. “직접 씨를 뿌리고 거두는 즐거움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야말로 자급자족하는 삶인데 자연 속에 묻혀 지내다보니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가 철저히 자연 속에 파묻혀 지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지난 해 10월 말 쯤 늘 오르던 산을 올랐는데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워낙 긴

재배하는 채소만 십여 가지.... 소요산 등반도 큰 즐거움

장 체질이라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심장의 90%가 이미 활동을 멈췄다’는 진단을 받았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후 그는 이식 신청을 한 후 정확히 보름만인 지난 해 11월 14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19세 청년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은 후 회복 기간도 남들보다 빨랐다. “원래는 제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기회가 온 거죠. 더 살라

는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애타는 자들은 체력 문제로 수술 받을 수 없었다. 그 후 자연스레 술과 담배를 멀리 하게 됐고 그러다보니 사람보다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됐다.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소홀히 했던 농사일에도 더 열정을 쏟았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만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지만 그가 현장을 누빌 때는 언제나 남들보다 좀 더 깊이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었다.

아용산 테러 사건 당시 피를 흘리면서도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곧 대통령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아용산 묘소 바깥으로 대어섯 걸음을 옮겼을 때 등 뒤에서 ‘뽕’ 하는 폭발음을 들었어요. 천장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수행원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보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참혹한 현장이었죠. 피를 흘리면서도 찍었어요. 기자로서 그 현장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 해 말 심장 이식 수술....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아용산 테러 사건 현장, 피 흘리며 카메라에 담던 기억 생생해

그러면서도 그는 찍힌 테이프를 뺏길까봐 호텔로 돌아와서 복사를 해두는 철저함을 보이기도 했다. 기자로서의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원래 꿈은 화가였는데 집안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림을 그리진 못해도 결국 그림을 담는 일을 하다 보니 더 애착이 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2번 공식 모임을 제외하고는 서울 나들이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그 예겐 이제 자연이 곧 친구다. “심장 이식 수술 후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바심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니 세상이 저의 느린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여유를 찾은 셈이죠. 느린 속도로 삶을 사는 게 이렇게 큰 즐거움일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야죠.”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ESSAY

소설 역시 PD일과 많이 닮았다

- 소설가를 키워낸 방송



박 찬 순

· 서울여대 영문학과 교수
· 소설가, 외화번역작가
· 68년 라디오 PD 입사
· 2006년 가리봉 양교리로
·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 2010년 첫 창작집
· 『발해풍의 정원』 출간

“산골마을 양철지붕 위에 열기설기 철사를 덧대며 초잡하게 매달아놓은 안테나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어설픈게 쓰아 보내는 전파를 받아보려고 애절하게 공중에 매단 그 간절함을 그대들은 아는가.”

68년 11월 1일 열 명의 PD와 네 명의 기자에 대한 수습사원 교육은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다. 교육을 맡았던 S 국장. 그는 아마도 그 무렵 난시청 지역을 시찰하고 온 뒤의 느낌을 말한 듯했다. 우리는 그의 표정에서 잠시 자신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소녀가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소년의 가슴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숙연해지려던 참나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방송이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교육받는 수습 피디와 기자들이 저런 식상한 말씀을 왜? 하고 추궁할 때 그는 ‘착각하지 말라’며 일침을 놓은 뒤 칠판에 한자로 두 글자를 썼다.

위대(偉大).

우리는 배를 잡고 깔깔했다. 웃음이 잦아들기 전 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과 정보와 즐거움과 슬픔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방송이야말로 위대(偉大)하므로 위대(偉大)하다고 말 재롱까지 했다.

이렇다할 기업도 별로 없고 취직이 어렵기로는 요즘보다 더 심했던 그 시기, MBC에 선택된 이상 우리들은 대선배 피디인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때로는 웃겼다, 때로는 울었다, 하는 선배의 강의에 동료들은 방송국이 그저 재미만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거 장난 아니

네, 하는 표정들이 역력했다. 이제 보니 그것이 바로 방송인 것들.

“방송이란 허공을 향해 쓰는 화살 같은 거야. 언젠간 뒷동산 위 참나무에 꽂힌 그 화살을 찾게 되지. 허공을 향해 부른 노래를 친구의 가슴에서 찾게 되듯이”

몽펠로유의 시구를 곁들이며 하는 그의 강의에 결국은 매료되어 우리는 대중문화의 기수가 되리라 다짐하며 방송 생활을 시작했다.

방송에서 필요로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순발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못한 필자는 별로 한 일이 없지 만 동료들은 제법 굴곡진 업적을 기록했다.

벌의 이변에 숨겨진 애달픈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만든 ‘법창야화’의 피디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의 원조 피디도 있다. 지금이라면 오후부대를 물고 다녔을 텐데…….

시대를 잘못 만나 참으로 그를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편지쇼 여성살롱의 피디, 녹음기와 마이크를 들고 말이 부르르도록 전국의 강과 산을 누비고 다니며 ‘강 따라 길 따라’ 다큐를 만들었던 독심의 피디 등이 모두 우리 동기들이다. 필자는 동료, 선배들과 함께 호흡하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나누고 모니터 결과를 서로 주고받던 때가 그림과 자랑스럽

내 젊음의 가운데 토막
MBC에 놓고왔기에 아직도 뜨거워나이 60에 문단 데뷔
올 첫 창작집 『발해풍의 정원』 발간

다. 필자가 늦깎이 소설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쟁쟁한 동료들과 함께 자유롭고 도전적이며 치열한 제작풍토에서 단련 받은 덕분일 것이다. 피디로서 늦게나마 숙제를 한 기분이랄까나 할까.

소설 역시 아른 인간의 영혼에 귀 기울이고 시대의

감성을 내 피에 녹였다가 토해내는 작업이므로 피디의 일과 많이 닮았다. 피디로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 소설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일단 취재하기를 즐긴다. 피디가 그렇듯 현장에 가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첫 창작집 『발해풍의 정원』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굵은 땀방울 흘린 뒤에도 어김없이 물려오는 고통에 홀로 아파하는 이들을 만나고 싶다. 그의 몸에서 눈부심의 징후를 맡고 싶다.”

타슈켄트에 파견된 보일러 기술자가 고려인 아가씨와 온돌체험방을 꾸미면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어쩌면 피디로서 방송에서 다루고 싶었던 소재였는지도 모른다. 대학 때부터 따뜻하게 데워지고 널찍하게 비워진 우리의 온돌방에 관심이 많아 언젠가는 그것을 소재로 소설을 써보리라 생각했었다.

노르스름하게 풍기름이 뺨 장판방에서 설날 세배도 하고, 친척이 다 모여 웃놀이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는 그 포용성 있고 열린 우리 민족 특유의 공간이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예부터 배타적인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때는 마침 다문화시대로 접어들어 우리의 온돌방에 터번을 쓴 이슬람 신자도 초대하고, 탈북자와 고려인도 끌어안아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구들문화는 만들어 내고 지척은 북방의 우리 민족의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에 자연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진정으로 바라 건대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세계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지금도 가끔 생방송 도중에 레코드로 LP 판을 찾으려 달려가는 꿈을 꾸곤 한다. 생방송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나보다.

내가 주눅처럼 아직도 젊다고 느낀다면 내 젊음의 가운데 토막을 MBC에 두고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곳에 오늘날도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민하는 팔팔한 후배들이 있는 한 내 심장에 그들과 더불어 펄떡펄떡 뛰고 있을 것이므로.

신규입회

- 01/12 朴龍興(관리) 011-9274-6200, 02-2653-8503
양천구신정2동1296 현대아파트103-1806
- 01/12 崔成수(관리) 010-8991-4495, 02-592-8332
서초구방배본동776쌍용에글래스101-1203
- 01/18 朴勝起(관리) 011-9105-1227, 02-975-0693
노원구하계2동 현대A 105-1204
- 01/18 李鐘世(관리) 010-9292-9918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254
- 01/18 허 운(관리) 011-1710-1620, 031-875-1838
의정부시호원2동 한승미메이드A 106-1303
- 01/25 鄭興實(보도) 011-448-2201, 033-255-1242
서대문구대원동145 APM아파트 1212호
- 02/08 金在天(관리) 010-9105-2111, 02-2611-1841
구로구개봉본동475 영화A 101-1804
- 02/08 宋錫哲(관리) 010-9292-2244
광명시 광명4동 200-6
- 02/08 李吉範(관리) 010-9035-1472, 02-2608-1864
양천구신정동958-16지오프레저A 101-501
- 02/08 李相吉(관리) 010-9105-1414, 031-878-6769
의정부시호원2동55-4신일유토빌108-2004
- 02/08 李鍾培(관리) 010-9105-2937, 02 720-6218
서대문구홍제2동456 성원A 103-204
- 02/08 趙炳玉(관리) 010-9105-2932, 02-6243-6328
강남구도곡동 현대A 2-211
- 02/23 李相旭(관리) 010-4659-1538, 02-813-1038
동작구 상도1동 739-1
- 03/16 李海成(보도) 010-2301-8801, 070-8273-6641
서귀포시중문동2404-6파미치빌라 202호
- 03/30 任武燦(관리) 010-9050-0148, 02-592-9749
서초구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C-1002
- 03/31 宣桐奎(보도) 010-5392-3526 02-6253-0103
강남구대치2동 은마A 19-1207
- 03/31 鄭泰成(보도) 011-9105-2326
고양시일산동구장항2동 SK엡시티 104-1518
- 04/01 安賢德(관리) 010-5214-9373 02-6427-4530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션수촌A 303-2301
- 04/05 文章煥(기슬) 010-9105-1357 02-3272-0923
마포구 신공덕동 삼성A 105-1702
- 04/06 이화섭(관리) 011-9091-4626 02-3463-4626
강남구도곡1동859-1 도곡한신A 4-1506
- 04/06 安光漢(관제) 010-5265-6030 02-2642-4708
양천구목1동961 하이패리온 201-1401
- 04/07 全瑛培(보도) 011-9274-5914 031-932-2614
고양시일산동구장항2동 호수마을408-902

전화/주소변경

- [편제]
김정식 010-5292-9711
김광웅 용인시 처인구 김광장동 주공A 206-1303
김승수 010-3704-3024/02-763-0302
은평구 중산동 223-28 자이A 202-303
김양배 010-2798-5098
김평호 010-4359-0615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84-5
김현철 010-8242-9667
노홍식 010-7110-2447
유철환 용산구보광동448신동아A, A-701
이길범 광명시 철산3동 래미안 자이 104-702
최광민 강남구 도곡2동 대림아크로빌 B-804
최근수 010-7321-9327
최영호 010-8272-3387
홍순영 017-234-9211
광명시 철산3동 래미안 자이 104-701
황학구 010-8712-9482
- [기슬]
강창우 02-2679-2144
영등포구 양평동3가 현대A 609-1004
김수량 02-2187-5632
강남구 도곡2동 대림아크로빌 A-4101
김종남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145 건영빌라 1008-203
임정봉 은평구응암동 44-10
- [보도]
구영희 서초구 서초동 1608-28 경남아너스빌 101-901
김광목 010-8310-5580
노영일 010-3756-9918
이대우 010-8181-4044

경조사항

결혼

- 정태석(관리)장남 3/14
신복남(전주) 딸 4/3
김윤근(대구)장남 4/18

부음

- 이보근(관리)모친상 2/5
안주희(Ann)시보상 3/4
정태일(관제)모친상 3/16
임재룡(기슬)모친상 3/25

- 권대택(기슬) 회원이 1월 30일 별세했다. 올해 63세. 평소 고혈압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1월 25일에 쓰러져 의정부 성베드로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5일만에 타계. 권회원은 제작기슬극 종합편집부 국장을 역임한 뒤 2006년에 정년퇴임해 철원 태양광발전소에 근무하면서 치료를 해왔었다.

- 윤영철(기슬) 회원이 3월 7일 자택에서 별세했다. 올해 84세. 윤회원은 이날 외출하려고 구두를 신고 일어서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뇌진탕이 치명상이 되었다. 지병인 전립선염으로 치료를 받아오기는 했으나 평소 낚시를 자주 다니는등 건강한 편이었다.

- 김용웅(관리) 회원이 3월 12일 현대아산병원에서 별세. 올해 62세. 평소 턱아래 부분이 자주 부어 고생해 왔는데 2월초순 병원에서 부갑상선종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지 1개월 만에 타계.

경사

- 팔순 김준영(계열) 4/7
고희 유병대(기슬) 4/8
신무성(전주) 4/22
유홍일(원주) 5/7
회갑 권재욱(관리) 4/14
방준식(기슬) 6/8

- 박맹의(기슬) 4/18
유제국(관제) 4/8
문시웅(업무) 4/23
임용길(기슬) 5/9
고종남(관리) 4/27
이관영(관리) 5/24
권혁준(관제) 4/10
최봉구(기슬) 4/26
황기찬(관제) 5/18
장두호(관리) 4/28
이현보(부산) 6/18
김윤근(대구) 4/10
이영복(보도) 5/2
문성수(관리) 5/30
고창근(ANN) 5/7
고무송(관제) 4/15
신준우(관제) 5/3
오학식(관리) 5/31
오학균(기슬) 5/25

연회비 내신분들

평생회비

- 박용홍(관리) 1/12 최성금(관리) 1/12 박승기(관리) 1/18 이종세(관리) 1/18 허 운(관리) 1/18
박춘우(관리) 1/27 이종성(기슬) 2/12 이상욱(관리) 2/23 이혜성(보도) 3/16 임무혁(관리) 3/30 안현덕(관리) 3/30
문장환(기슬) 4/5 안광환(관제) 4/6 전영배(보도) 4/7

연회비

[1월] 강복주(10) 고병조(10) 고창근(10) 김평안(10) 김상호(10) 김순배(07~10) 김윤근(10) 김인규(06~09) 김정수(10) 김종대(10) 김태숙(08~09) 남기두(10) 민홍식(10) 박기운(10) 박세림(10) 박창복(05~09) 박춘우(03~09) 배상호(10) 서상규(10) 서정남(02~10) 손영조(10) 안남래(04~08) 양남중(10) 엄기원(09~10) 엄용렬(10) 엄영수(10) 이상원(10) 이승문(07~10) 이양길(09) 이영생(10) 이완수(10) 이종철(10) 이하걸(10) 임성전(09) 임재룡(04~09) 정상화(10) 정형진(10) 정홍보(10) 정홍숙(03~18) 최영호(04~10) 최호철(10) 홍신숙(07~08) 황진환(10)

[2월] 김광웅(07~09) 김부길(09~10) 김병철(09~10) 김병택(10) 김부영(10) 김시웅(09) 김영호(09~10) 김재천(10) 김진호(10) 노성석(10) 맹광호(09) 민경창(10) 박수부(06~10) 박창순(10) 박홍배(08~10) 백낙왕(10) 백병기(전주) 02~17 백재인(04) 백중석(10) 서정호(10) 성준현(10) 송석철(10) 송재선(10) 신무성(10) 안병태(10) 오두영(10) 오명균(10) 오순심(09~10) 유홍철(10) 윤상준(10) 이길범(10) 이방근(03~10) 이상길(10) 이상립(10) 이시권(10~11) 이연규(08~10) 이은명(05~10) 이종구(09~10) 이종화(10) 이주열(10) 이종광(10) 이진배(10) 이현보(10) 인우삼(10) 임부주(11) 임창영(10) 장두원(08) 전용수(09~11) 전지웅(09) 정명환(10) 정병준(10) 정봉일(10) 정영호(10) 정 진(11) 정진도(10) 정호준(10) 조동호(10) 조병욱(10) 조성식(10) 차기동(10) 최영돈(09~10) 최영성(10) 홍순영(10) 홍이표(10) 황구봉(11~13)

[3월] 강현식(10) 권대규(10) 권혁화(10~12) 김만기(10~11) 김영면(10) 김철순(02~10) 박문식(08~10) 배성룡(10) 신명현(09~10) 심재정(10~12) 연규철(10) 오법성(02~10) 윤남현(10) 이두표(10) 이성구(10) 이성일(10) 이승대(07~11) 이창호(10) 이한익(10) 임성전(10) 정 군(10) 정태일(09~10) 조태병(02~17) 차종식(10) 황중휘(10)

- 이은명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 114-1201
이현규 010-9105-1237
장효상 김포시 장기동 545-5 전원마을 113-1201
황영옥 010-3243-0022
[ANN]
양진수 070-7658-2183
서초구 서초3동 1463-20 팍산빌라 302호

[업무]

- 전옥생 010-5298-3117
최창업 070-7520-1290

[관리]

- 김경일 남양주시와부읍도곡리한강우성A 118-1002
박춘우 은평구응암1동93-6명남더블레스 101-701
박한성 02-747-1915
오법성 송파구 오금동 36-16
윤종욱 070-8283-0163
구로구 구로1동 1821 한일윌아이 106-804
이규용 광진구자양2동695한양A 7-1002
이소진 은평구불광동 353-15 (3층)

- 이영환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코오롱 하늘채 106-1102
이재수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49-5 현대파크 A-301
이종열 010-4815-8824
이종철 031-975-6726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1102-503
정인호 010-3831-8889
최동윤 은평구불광동248미성A 8-802
최병태 031-585-4151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653
홍성기 은평구 진관동88 은평뉴타운 우물골 214-506
홍춘표 033-375-7091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1067-3

[대전]

- 박명하 010-5341-8021

[전주]

- 신복남 010-6675-1859

그때 그 시절

1

“MBC 살린 건 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한 겁니다”



이 환 의 사장

· 1931년 전남영암 출생
· 1958년 서울사범대 졸
· 1964년 경향신문 정치부장
· 1968년 전북도지사
· 1971~80년 문화방송 사장
· 1992년 14대 국회의원

학이사장실에 들르자 비서가 국회 쪽에 계시다며 잠깐 기다리시라 한다. 옆 의자에 앉으려하자 안으로 들라한다. 괜찮다고 사양하니 밖에 모시면 이사장님한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 검은 머리에 검은 넥타이를 쓰고 취임한 이환의 사장. 마흔 살 젊은 사장은 연임에 연임을 거듭. MBC수장으로 10년을 머물다가 전두환정권에 의해 삭탈권 후 미국행 비행기를 탔었다.

옛 사장님을 뵈고자 궁덕동 5거리에 있는 백제대

장을 하는데 뜻밖이지근해, 임자가 가야겠어. 가서 잘 좀 해봐. 전혀 뜻밖이었지요. “각하. 전 신문기사를 해서 신문은 좀 압니다만 방송은 생소해서...” “임자! 하라하면 해. 잔소리 하지마라.”

사장을 공모하고, 노조가 반대하고, 임기 전에 망가지고, 시민단체가 샅대질하고, 아무나 발길질해대는 오늘날과는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오일쇼크로 세계적 경제위기가 도래해서 아침방송 중지, 심야방송 폐지, 광고방송 규제 등 방송계에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MBC는 매출액 38.2% 상승, 영업이익의 149% 증가, 순익 209%증가를 나타냈는데...”

“아... 1973년이었지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한 것입니다. 나는 체온보다 마음의 온도를 뜨겁게 올려줬을 뿐입니다. 잘 한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고, 못했을 때 다음에 잘하자고 했지

‘각하, 방송은 생소해서..... 임자, 하라하면 해’ 71년 사장취임

테 자기가 혼난단다. 이사장님의 남에 대한 깍듯한 배려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물론 500년 이씨조선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이사장의 무게도 느껴진다.

차 한 잔 마시기도 전에 당도한 이사장님은 전혀 80나이를 느낄 수 없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 군불부터 먼저 지켰다.

오늘 아침 신문에 “MBC 시청률 꼴지, KBS에 질판, SBS에도 훨씬 뒤져”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앞에 있는 신문을 가리키며, “나도 봤어요. 내 사장 시절에 MBC 시청률은 항상 70~80%대였어요. 지방은 80%를 넘었지요. MBC를 잘 보기 위해 안테나를 높이는 집도 많았잖아요. KBS사장은 H씨였는데 하루는 술 한 잔 하시고 해요. 그래서 호텔 식당에서 만났는데 앉자마자 “웬 만큼 줄 하쇼. 이번에 지방은 시청률이 15%로 떨어졌어요. 혼자 할 게 뭐 있어요? 적당히 하십시오.” 불만 섞인 하소연이었죠.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지, 시대가 영웅을 낳는지의 문이지만 이 이환의가 빠졌던 것은 장의적이고 저돌적인 여러분들 때문이었지요. 임택근, 서규석, 박근숙, 이만우, 노서을, 그리고 모든 직원들. 이글이글 타는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야 산수의 나이를 느낄 수 있었다. “TV방송 시작한 지 2년째 지난 1971년에 사장직으로 오셨지요?”

“전라북도 지사를 하다 모가지가 떨어져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전갈을 받았지요. 박정희대통령을 뵈자 “대구사범 내 동기가 MBC사

요. 정말 똥돌 똥쳤어요. 애사심도 대단했고요. 지금도 그림고 그리운 시절,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지요.”

“제가 처음 사장으로 와서 보니까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월급을 한 달 후에나 찾는 연수표로 지급하고 있었지요. 누가 남대문시장에 가보고 해서 가보니 ‘MBC불도장’이 찍힌 녹음테이프가 여기저기 쌓여있어요. MBC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까 생각도 해 봤어요. 아니다.

먼저 돈을 벌자. 돈을 벌어 직원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자. 이렇게 고쳐먹고 딱 댔었지요. MBC를 살리는데만 고민을 하고 잡다한 번민은 훗날 날려버리자 이렇게 다짐했지요.”

이환의 사장님을 뵈는 날은 아침에 해가 뜨고, 낮에는 비가 오고, 저녁에는 눈발

그때 그 시절

월급은 연수표로 지급되고
남대문시장에선
‘MBC불도장’ 찍힌
녹음테이프 마구 나돌아

이 날린 변화무쌍한 날씨였다. 세종로에서는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고 나의 불쏘시개를 슬슬 밀어 넣는 질문에 이사장님은 탁탁 장작이 타는 말로 톤이 높아져 남기고 싶은 얘기를 이어갔다.

인터뷰 / 이대우 문화방송 기자회견장

동호회 불철행사 일정확정

‘그리운 얼굴 여기서 만나 보세요’

등산대회 : 4월 14일(수) 오전 10:00 지하철 3호선 녹번역 2번출구 주유소앞에 모여 북한산 포금정사까지 오르며 봄날을 만끽했다.

낚시대회 : 4월 28일(수) 날씨가 추우면 조황이 좋지않아 고심 끝에 4월늦게날짜를 잡았는데 장소는 현장답사를 거쳐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골프대회 : 5월11일(화) 충주중원골프클럽. 오후1시 30분 티업. 10개팀을 목표로 사우회 사무처에서 4월 26일(금)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단합대회 : 5월 18일(화) 오전 11:00 양주문화동산. 정동 사우회 앞에서 오전 9:30 버스출발.

바둑대회 : 6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사우회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5급이상의 A조, 6급이하의 B조로 나뉘어 대국을 갖게되는데 당일 9시 50분에 대진추첨을 하게된다.

원로회원산업시찰 : 6월중순신시예정 5월중에 장소결정해 개별 통보한다.

회원동정

최창봉(전사장) 1월 2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방송과 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동아일보 김학준회장, SBS 윤세영회장, 임기영 전MBC사장, 이동관 청와대 공보수석등 230여명의 지인들이 참석해 노방송인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김휴선(보도) 올 1월중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협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1년.

박찬순(편제) 서울여대교수. 첫 소설집 『발해풍의 정원』을 문학과지성사에서 펴냈다. 박희원은 2006년, 60세의 늦은 나이에 작가로 데뷔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발해풍의 정원』은 東仁문학상 최종심사에도 오른 작품이다.

이상열(보도) 공정언론시민연대공동대표. 2월3일,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오태돈(보도) 2월9일, 재직중인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송국 주간으로 선임됐다.

고석만(편제) 흥남대철수를 소재로한 전쟁영화 박산의 감독을 맡아 제작에 들어간다.현재 시나리오 작업이 진행중 인데 내년 6월에 개봉될 예정이다.

윤종보(보도) 前안동 MBC사장-글로벌파이낸스포럼회장. 지난해 11월에개강한 금융리더스 아카데미 제1기 수료식을 2월24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가졌다.

김정명(보도) 전울산 MBC사장. 2월초, 삼성언론재단 신임이사로 선임됐다.

김종남(기술) 3월1일, 재직중인 경기공업대학 전자통신과 산학협력전담 부교수로 승진했다.

이명세(관리) 3월18일, 파주시 노인회 차기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이회원은 4월1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안재기(보도) 전MBC아카데미 이사. 3월 하순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

김승수(편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 4월 19일 개교하는 한국드라마 프로듀서스쿨 교장으로 선임돼 PD를 꿈꾸는 후배들을 양성하게 됐다.

장서 4천 여 권 국책기관에 기증



이 규 봉

전 MBC프로덕션이사. 2월초 매일경제뉴스채널 mbn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모범 장서가로 선정되기도한 이회원은 3월 19일 고교때부터 40여년간 모아온 책 4천여권을 국책연구

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구 정신문화연구원)에 기증했다.

기증도서에는 일제시대 출간된 벽초 홍명희의 임궽정 초간본(1939~40)등 소설류와 각종잡지, 광고관련 서적,국내외 미술도록 등이 포함되어있다. 연구원은 기증도서 분류작업을 거쳐 오는 7월 ‘이규용문고’라는 개인 문고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NO. 1 CHANNEL in SPORTS

since

프로야구
ON MBC ESPN

MBC SPORTS

연속 스포츠채널 시청률 1위

6년 연속 스포츠채널 시청률 1위



www.mbcESPN.com